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2년 2월  
석사학위 논문

『인도로 가는 길』에 나타난  
식민주의적 인간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김은진

『인도로 가는 길』에 나타난  
식민주의적 인간관계

Humanistic Relations on Colonialism  
in *A Passage To India*

2012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 어 영 문 학 과

김 은 진

『인도로 가는 길』에 나타난  
식민주의적 인간관계

Humanistic Relations on Colonialism  
in *A Passage To India*

지도교수 최 한 용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 어 영 문 학 과

김 은 진

# 김은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정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경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한용 (인)

2011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I . 서론 .....	1
II . 작품의 평가와 사상적 배경 .....	3
III . 영국인과 인도인의 민족적 갈등 .....	10
A. 지리적 묘사에 나타난 분열 양상 .....	10
B. 인간관계 형성의 시도와 한계 .....	15
C. 마라바 동굴 사건 .....	27
IV . 이질적 민족의 화합과 조화의 가능성 .....	37
V . 결론 .....	55
참고 문헌 .....	60

# Abstract

## Humanistic Relations on Colonialism in E. M. Foster's *A Passage to India*

Kim Eun-jin

Faculty Advisor: Prof. Choe Han-yong, Ph.D.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some problems of human relations from the colonial perspective shown in *A Passage to India* (1924) by E. M. Forster.

It discusses division including conflict and confusion that the figures experience in the colonial situation through the human relationship between the British, colonial rulers and Indians, subjects and it is never simple. Therefore, to establish true human relationships by person-to-person in division spread to various aspects, the method to overcome this division should be presented and it should be based on human understanding.

In chapter II, understanding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novel through the background and ideologies expressed throughout the novel. In chapter III, racial conflicts of characters were handled with respect to psychological and cultural perspective. It was aimed to reveal that a narrow-mindedness and dichotomy of thought, with which colonial rulers ruled political situations, deepened foreign ethnic feelings and encouraged ethnical split and animosity, by focusing on an ethnic or cultural conflict between the English and Indians.

Moreover, unique narration, description and images of Indian landscape which are shown in the work are also found to have colonial influences. In chapter IV, the intention of the author is to clarify the latent premise: 'possibility of harmony and balance of foreign people'. Forster stipulates a true effort between two parties who seek order in more tolerant and universal viewpoints, in the disordered and various worlds. In the conclusion, Forster intends to stress, while there is the potential to overcome, through 'tolerance and reconciliation', these difficulties suffer in the course of making the effort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universe of humans. Characters in this novel show the limits in overcoming foreign ethnic senses while not knowing principles of the nature and the universe without losing a sense of colonial ideology.

*A Passage to India* was published when India was still a colony of England, in 1924, and dealt with a very sensitive issue which was enough to arouse criticism both socially and politically. Despite those conditions, Forster tried to objectively describe the colonial reality of India, focusing on the nature of colonialism. He shows that colonialism is not just for domination, oppression and ignoring the Orient by criticizing the British in the work. However, by just describing some impressions of Indians and India, Forster himself describes all of the properties of the Orient, it is shown that he was also not free from political reality, the British Empire and the prejudice of the West against the Orient.

# 1. 서론

포스터(E. M. Forster)는 많은 소설을 남기지는 않았으나 20세기 초에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는 5권의 소설 이외에도 비평이나 전기를 썼으며, 그가 살던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 혁명적 기질의 소유자였다. 그는 불가지론적 종교관을 갖고 교권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정치에 있어서는 자유 민주적이며 항상 개인적인 존엄성을 찬양했다. 그의 이런 성향은 그의 작품세계에도 반영되어서, 그의 모든 작품에서는 개인적인 감정과 충동이 사회적인 인습보다 우선한다.

그의 『인도로 가는 길』(*A passage to India*)은 작가 자신이 1912년과 1921년에 인도를 두 차례 방문한 것을 토대로 10여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제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5년 후인 1924년에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포스터가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때 8장을 썼고, 두 번째로 인도를 방문하여 나머지 부분을 탈고하였다고 한다.<sup>1)</sup>

포스터는 이 작품에서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갈등과 그들 앞에 놓인 정치적 현실이라는 장애요인이 있는 인도를 배경으로 하여 그 속에서의 식민지배자인 영국인과 피지배자인 인도인이라는 두 민족 간의 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이질감, 정치적, 사회적 분열은 등장인물들의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에 주목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포스터가 초기 작품부터 추구해 온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식민 상황을 배경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이를 통해 식민지배자인 영국인과 피지배자인 인도인의 우정의 화합과 조화의 가능성을 어떻게 완성하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리의 전개에 있어, 제 II장에서는 작품의 배경과 사상적 배경을 통해 소설의

---

1) John Beer, "The Undying Worm,"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A Casebook*, Ed. Malcolm Bradbury. Macmillan (London: Macmillan Press, 1970), p. 186.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 III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민족적 갈등을 심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 특히 '영국인과 인도인의 민족적 내지 문화적 갈등'에 초점을 두어 식민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식민지배자들이 갖는 피지배자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이분법적 사고가 이질적 민족감정을 심화시켜 민족적 분열과 적대감을 조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작품에 나타난 인도의 자연이 가진 독특한 서술 묘사 이미지 역시 식민지적 의식을 담고 있음을 살펴본다. 제 IV장에서는 '이질적 민족의 화합과 조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잠재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포스터는 무질서하고 다양한 세계 보다 관용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양자간의 진정한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결론에서 포스터는 이러한 주문을 인간이 자연과 우주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관용과 화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 설정된 인물들은 자연과 우주의 법칙에 아둔한 채 식민지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적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II. 작품의 평가와 사상적 배경

포스터는 소설 『인도로 가는 길』을 발표한 후 비평가들로부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교양과 지성의 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트릴링(Lionel Trilling)은 그의 『포스터론』(*E. M. Forster*)에서 그의 작품은 몇 번이고 읽을 가치가 있고, 읽을 때마다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감흥을 일으키게 해 주는 유일한 작가라고 했다. '그 무엇인가 배우게' 해 준 포스터의 매력은 바로 그가 지니고 있는 교양미와 지성미의 아름다운 조화라고 할 수 있다.

E. M. Forster is for me the only living novelist who can read again and again and who, after each reading, gives me what few writers can give us after our first days of novel-reading the sensation of having learned something.<sup>2)</sup>

"포스터는 이 작품을 통해 당대의 살아있는 영국 소설가들 사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Through this work, Forster maintains a strong position among living British novelists.)"<sup>3)</sup>

이전의 많은 작가들이 인도에 관한 작품들을 발표했지만,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에 묘사된 인도는 다른 작가들의 그것과 차이가 있다. 이 차이에 대해 다스(G. K. Das)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키플링으로부터 폴 스콧에 이르는 여러 작가들이 매혹적이고 허구적인 제국주의하의 인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에 반해,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인도를 묘사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

2) Lionel Trilling, *E. M. Forster*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 85.

3) Norman Page, *E. M. Forster*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87), p. 10.

Several novelists from Kipling to Paul Scott have given us enchanting fictionalized pictures of imperial India... but the distinction of *A Passage to India* lies in the fact that it registers the transitional moment of British India's transformation into a new India with a disenchantingly realistic and historical vision.<sup>4)</sup>

1920년대 초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인과 인도인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이 작품은 식민지 인도에서 벌어지는 서로 다른 종족간의 우정이나 정치적 역할 또는 식민주의 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히 정치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질서하고 다양한 세계에서 질서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과 우주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에 관한 것이다. 인도를 작품의 배경으로 정한 이유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인도가 인간관계의 다양한 양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마틴(John Sayer Martin)은 "포스터의 인도는 다양한 인종, 강령, 계급 조직, 서로 충돌하는 목적이나 열망을 담고 있는 현대세계의 축소판(The opinions expressed in the book is that the microcosm of the modern world containing various races, doctrines, class organization, objectives and aspiration all conflict with each other.)"<sup>5)</sup>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포스터는 인간조화에 대한 생각들을 내적 삶의 비밀과 전 우주의 신비로 연결하고 있다.

포스터가 추구하는 중요한 주제는 다른 두 인간형의 대립관계를 그리면서 그들의 대극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인간관계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기질을 개인주의자로 규

---

4) G. K. Das, "A Passage to India: A Socio-Historical Study," *A Passage to India: Essays in Interpretation*, Ed. John Beer (London: Macmillan, 1985), p. 1.

5) John Sayer Martin, *E. M. Forster: The Endless Journe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p. 143.

정하며 그의 작품을 통해서 개인적 관계와 개인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Temperamentally, I am an individualist. Professionally, I am a writer, my book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ersonal relationship and private life, for I believe in them.<sup>6)</sup>

이와 같은 대립과 해결은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성으로 결말에 이르면 모순 또는 대립을 통해 상반된 두 인간형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들의 상반된 주제도 절충된 견해에 도달함으로써 결말을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모호하고도 난해한 점이 많은 이 작품은 지금까지 추구해 온 화합 또는 화합을 모색하는 일에 그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완전한 결말을 보류해 버림으로써 낙관적인 기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이 작품의 모호하고 난해한 이면에는 전통성과 현대성이 조화를 이룬 기법과 다양한 주제가 있다. 20세기 초 영문학은 조이스(James Joyce), 울프(Virginia Woolf), 엘리엇(T.S. Eliot) 등의 일련의 작가들에 의해 중요기법들이 전성기에 달하고, 당시 정점에 이르렀던 산업화와 근대화로 소외되는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어 보이는 기법에서 두각을 보인다. 그들의 작품들은 한 개인의 파편화된 인생 경험의 내부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를 나타내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하여 영원한 삶의 의미를 포착해내는 시점이나,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기법들인 에피퍼니,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등의 기법 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동시대에 작품 활동을 한 포스터는 그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분열된 사회에서 소외되는 개인의 모습과 그 파편화된 모습을 세밀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기술적인 방법과는 달리 분열된 삶의 조각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포스터의 작품들은 개인과 사회의

---

6) E. M. Forster, "The Challenge of Our Time," *Two Cheers for Democracy* (London: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1), p. 55.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화합의 길을 찾고, 소외나 파편화된 삶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포스터는 "어떤 최후의 심판에서도 나의 변호는, 나는 항상 연결하려 했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조각들을 이용하려고 노력해왔다.(My defence at any last judgement would be I was trying to connect up and use all the fragments I was born with.)"<sup>7)</sup>고 자신의 작가적 태도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파편화된 조각들을 결합시키려는 그의 정신은 그가 발표한 거의 모든 작품에서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여 통합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노력이 동시대 다른 영국작가들과의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야기 전개가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된다는 비판에 대해 포스터는 묘사대상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가 작품을 쓰던 중 그의 친구 사이드 로스 마수드(Syed Ross Masood)에게 쓴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인도라는 개체가 가지고 있는 신비성으로 인해 자신의 모호한 서술에 대한 합리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불완전한 서술을 정당화시킨다.

동굴 속에 있었던 것은 사람이거나, 초자연적인 무엇이거나, 환상일 수도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그 답이 무엇이든 간에 다른 책이 되어버린다. 내가 알 수 있기만 하다면! 이 부분에서는 정신이 흐릿하다.... 그것은 미적 철학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별한 트릭이다. 주제가 인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릭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In the cave it is either a man, or the supernatural, or an illusion. And even if I know! My writing mind therefore is a blur here - i.e. I will it to remain a blur, and to be

---

7) G. K. Das and John Beer(eds.), *E. M. Forster: A Human Exploration* (London: Macmillan Press, 1979), p. 1 에서 재인용 함.

uncertain, as I am of many facts in daily life. This isn't a philosophy of aesthetics. It's a particular trick I felt justified in trying because my theme was India.<sup>8)</sup>

포스터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인도에 대한 이해가 '신비로운 동양'이라는 범주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작품의 제목은 작품을 해석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작품의 제목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작품은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 구도에서 읽을 수 있다. 즉, 『인도로 가는 길』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중심주제로 다룬 작품으로 당시 영국의 인도 지배를 상기하면 지배와 피지배, 식민과 저항, 서양과 동양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은 인도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문화적, 정치적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탈식민주의의 대표적 비평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패리(Parry)는 그녀의 초기 비평인 "Passage to More Than India"라는 논문에서 등장인물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인 무어부인(Mrs Moore), 아델라(Adela), 필딩(Fielding)을 통해 포스터가 묘사하는 인도의 모습은 작가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각 뒤에 내재된 인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적하고 있다. 이 곳 인도는 지금 '종족 간, 성별 간, 문화 간, 심지어는 인간 자신과의 분리가 모든 관계의 아래에 놓여있고,<sup>9)</sup> 서로 다른 민족, 종교, 계급 등으로 분열되어진 곳이다. 그녀는 『인도로 가는 길』에서 포스터가 인도를 인간에게 너무나 적대적인 공간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러한 인도가 서구인들에게 도덕적인 시험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탈식민적인 시각에서 동양에 대한 포스터의 편견을 지적하고 있는 패리는 "아니, 아직은 안 된다.

---

8) P. N. Furbank, *E. M. Forster: A Lif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9), p. 125.

9) Loine Trilling, *op. cit.*, p. 114.

아니, 여기선 안 된다.(No, not yet. No, not there.)"<sup>10)</sup>로 모호하게 끝맺는 소설의 결말에서 희미하게나마 동양과 서양의 화합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1)</sup>

1980년대 이후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문학비평의 장을 연 사이드(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1979)에 비춰볼 때,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 역시 영국 제국주의가 바탕으로 하는 동양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오리엔탈리즘은 학술의 한 분야로, 14세기에 비엔나 교회회의에서 파리, 옥스퍼드, 볼로냐, 아비뇽, 살라망카의 각 대학에 아라비아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시리아어에 관한 일련의 강좌가 생겨난 때부터 서양의 학문 체계에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사이드가 그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을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양에 대한 서양의 사고방식 또는 지배양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다른 뜻이 부여된다. 그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동양에 관계하는 방식으로서 서양인의 경험 속에 동양이 차지하는 특별한 지위에 근거한다. 서양이 보는 동양은 동양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와 편견을 통해 투사된 허상과 상상일 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동양은 그동안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구인들에 의해 정의된 형태로만 존재해왔다.

『오리엔탈리즘』에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적이며 기술적인 지배의 표현이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점거,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된 순수한 학문적 의미 대신 하나의 구조물, 지배의 상징, 권력의 수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양은 동양을 타자의 위치에서 보면서 신비하고 비현실적이며 원시적인 비천하고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문명적

---

10)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 (서울: 신아사, 1985), p. 388. 이후 이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을 표기한다.

11) Benita Parry, "Passage to More than India," *Forst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Malcolm Bradbury (England: Prentice-Hall, Englewood Cliff, 1966), pp. 160-74.

12) Edward E.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9), p. 99.

이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월한 서양이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신비적인 동양을 복종시키고 지배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은 다양하고 이국적인 타 문화에 대한 학문적 존중으로부터 출발한 동서의 공존이라는 본래의 개념을 상실하고, 오히려 유럽서방국가의 동양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 동양을 신비하고 획일적인 존재로 잘못 나타내는 수단으로 탈바꿈하였다.

사이드가 지적하는 오리엔탈리즘의 폐해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이미지가 단순히 상상에 그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실천에 의해 지배와 위협 그리고 억압이라는 지배, 피지배의 권력관계를 낳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양에 대한 순수한 학문적 존중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적 문명화의 사명을 심어주어 동양을 자신들의 권력 아래 두고 식민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III. 영국인과 인도인의 민족적 갈등

포스터는 『인도로 가는 길』에서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식민지배자인 영국인과 피지배자인 인도인이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즉 다른 문화권 출신들 사이의 우정 가능성이 이 소설의 핵심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질문이 아니라 대립, 갈등관계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정치, 계급, 경제, 종교, 문화적 차이와도 관계되는 질문이다. 또한, 이 작품이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으로서 인간의 삶에 처한 분열을 표면화시켜 그 속에서의 진정한 인간관계 혹은 이상적인 조화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 질문은 인도인과 영국인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가와 지배자로서의 영국인과 피지배자로서의 인도인의 관계는 서양인과 동양인이라는 종족적 기질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 또 이성적이며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며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서구적 사고와 감정적이며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명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불가능한 문제이다.

#### A. 지리적 묘사에 나타난 분열 양상

영국인과 인도인 사이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갈등은 『인도로 가는 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찬드라포어(Chandrapore)시의 묘사에서 알 수 있다. "이 가상의 도시는 하나의 구체적인 도시인 동시에 인도의 축도"<sup>13)</sup>라고 세 페이지에 걸쳐 지리적 묘사를 함으로써 분열 양상을 사실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낸다. 여기에서 두 종족간의 생활양식과 의식의 차이, 문화 차이를

---

13) John E. Hardy, "The Modern World in Epitome," *Man in the Modern Novel*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4), p. 143.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사회적 불평등과 그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정치적 대립 문제 또한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이곳은 영국인과 인도인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지만 두 민족의 거주지의 대조적인 모습 속에서 인간의 삶의 여러 분열된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곳은 인도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곳이며, 두 거주지의 이러한 '지리적 분리가 인종적 차이에 대응'<sup>14)</sup>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찬드라포어는 강과 평행선을 이루며 뻗어 있는 기차길에 의해 구분되어 초라하고 지저분하다. 또 외견상 너무나 단조로운 원주민의 거주지와 질서 정연하고 말끔하게 정돈된 영국인의 거주지가 상반된 모습을 하고 있다.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면 겁을 먹고 도망갈 이곳은 피지배자인 인도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 번도 변영했던 적이 없으며, 이 나라의 상징인 갠지스 강마저도 그 신성함을 잃어버렸으며, 오히려 그 강이 모두 쓸어 가버린다면 좋은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가장자리에 갠지스 강이 흐르고 있지만 강물에 씻는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이 도시는, 멋대로 내다 버린 쓰레기로 뒤범벅이 된 채 강둑을 따라 2마일 쯤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갠지스가 이곳에서는 성스러움을 잃기라도 한 듯 강변에는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가는 계단도 없고, 도도한 물줄기의 전경마저 시장 건물들이 가리고 있다. 이 도시의 거리들은 초라하고 사원들도 미미하며, 좋은 집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정원에 가려져 있거나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면 기겁해서 도망갈 만큼 지저분한 골목들을 지나야 달을 수 있다.

Edged rather than washed by the river Ganges, it trails for a couple of miles along the bank, scarcely distinguishable from the rubbish it deposits so freely. There are no

---

14) Norman Page, *op. cit.*, p. 102.

bathing-steps on the river front, as the ganges happens not to be holy here; indeed here is no river front, and bazaars shut out the wide and shifting panorama of the stream. The streets are mean, the temples ineffective, and though a few fine houses exist they are hidden away in gardens and down alleys whose filth deters all but the invited guests. (21)

인도인 거주 지역은 더러움과 무질서함이 도처에 깔려 있으며 숲과 움푹이는 인간들 역시 진흙 덩어리로 보이는 묘사 장면은 인간을 포함해서 그들이 세운 문명과 역사 또한 모두 진흙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부정적인 인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진흙은 사멸과 만물이 생성되는 생명의 터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sup>15)</sup> 이런 진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그것이 갖고 있는 생명력은 자연의 원동력과 같은 근원적이고 끈질긴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인 거주지는 부정적인 인상 아래에는 저급하지만 파괴할 수 없는 원초적인 생명력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인 거주지와 대조적으로 영국인 거주지는 생명력과 감정이 메말라있다. 붉은 벽돌집과 직각으로 교차되는 도로에는 엄격한 질서감은 있지만 생명력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영국인 거주지에 결핍된 생명감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무성한 수림에 의해 주어진다는 사실은 이 곳 생활양식의 결함을 은연중에 나타내 준다. 특히, 인간이 지닌 능력보다도 더 많은 힘을 받은 울창한 숲은 자연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노력이 쓸모없는 것임을 암시할 뿐 아니라 그들이 무력으로 무질서한 인도에 질서를 부여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영국인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영국인 거주지는 직선으로 된 구조가 암시하듯이 이런 자연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을 보여준다. 이곳은 이 도시의 나머지 부분인 인도인 거

---

15) 김명렬, "Forster의 『인도로 가는 길』 -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을 넘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백낙청 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 p. 254 참조.

주지와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있으므로 영국인 거주지의 견고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두 거주지를 높은 하늘이 굽어보며 서로 연결해주고 있으며, 이 하늘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데에서 영국계 인도인의 생활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이렇듯 대조적인 두 거주지의 이질감은 영국인과 인도인 사이의 분열과 갈등으로 표면화 된다.

목재 자체도 진흙으로 만들어진 듯하고 역시 진흙으로 빚은 주민들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 눈길이 닿는 것마다 너무나 초라하고 단조로워서 차라리 갠지스 강이 모조리 휩쓸어 가버리는 것이 나올지도 몰랐다. 집들은 무너지고 익사한 사람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부패하고 있지만, 도시의 전체적인 외관은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하등 동물처럼 여기가 팽창하면 저기가 축소되는 식으로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다.

...그곳은 특별히 매력적이지도, 불쾌감을 주지도 않는다. 계획 지구로 건설되어 정상에 붉은 벽돌로 지은 클럽이 있고, 그 뒤로는 식료품점과 공동묘지가 있으며 직각으로 교차된 길들을 따라 방갈로식 목조 주택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곳에는 끔찍스러운 게 없고 전망만큼은 좋으며 찬드라포어와 공유한 것이라고는 머리 위의 하늘밖에 없다.

The very wood seems made of mud, the inhabitants of mud moving. So ahead, so monotonous is everything that meets the eyes, that when the Ganges come down in might be expected to wash the excrescence back into the soil. Houses do fall, people are frowned and left rotting, but the general outline of the town persist, swelling here, shrinking there, like some low but indestructible form of life.

...It charms not, neither does it repel. It is sensibly planned, with a red-brick Club on its brow, and further back a grocer's and a cemetery's and the bungalows are disposed

along roads that intersect at right angles. It has nothing in it, and only the view is beautiful; it shares nothing with the city except the overarching sky. (22-23)

이 아치 형태의 하늘이 '미래의 가능성, 즉 영국인과 인도인 사이의 화합의 가능성'<sup>16)</sup>을 보여 주기는 하지만, 그 순간이 찰나에 지나지 않아 인도에서의 영원한 화합은 아주 오래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하늘은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분리되어 대립하는 이들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의 다리는 인간의 힘으로 놓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찬드라포어 전체를 하나로 감싸는 하늘 저 너머에 있는 더욱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잠깐 하늘과 결합하기도 하지만 항상 분리되어 있는 인도의 땅은 또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적대감을 감추고서 그 위를 걷는 보행자들을 괴롭히고 지치게 한다.

인도의 땅은 보행자에게 적대적이다. 너무 질어서 발이 푹푹 빠지는가 하면 예기치 않게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멩이나 결정체들을 밟게 된다.

There is something hostile in that soil. It either yields, and the foot sinks into a depression, or else it is unexpectedly rigid and sharp, pressing stones or crystals against the tread. (36)

이렇듯 식민지 인도의 모든 것은 분열되어있다. "거주지의 분열된 모습에서 영국과 인도의 충돌로 보이던 것이 하늘과 땅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그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sup>17)</sup>되어 가고, "종교와 정치는 물론 인종적

---

16) Norman Page, *op. cit.*, p. 100.

17) J. B. Beer, *The Achievement of E. M. Forster* (London: Lowe & Brydon Ltd., 1968), p. 147 참조.

갈등을 제시<sup>18)</sup>하면서 결국 인도에서는 그 어떤 화합과 조화로운 관계의 형성도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 B. 인간관계 형성의 시도와 한계

이 작품이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으로서 인간관계에 처한 분열 양상을 실제화 시키는 '영국인과 인도인의 우정 가능성'에 대해 하미둘라와 마무드 알리는 영국에서는 인도인과 영국인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인도에 온 영국인들은 영국에서와의 다른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인도에서 영국인과 인도인이 서로 친분을 쌓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림으로서 작품의 결말을 예견한다고 볼 수 있다. 상반된 두 인간관계를 불가능한 문제로 표현하는 데는 바로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민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저녁모임이 토론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수연통만 피워 물고 있는 아지즈의 상관 캘린더 소령의 소환으로 끝나게 된다. 이는 영국인들이 인도인들의 사생활을 무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아지즈(Aziz)는 아무 일도 아니면서 괜히 권세를 부리려고 자신의 저녁모임을 훼방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상관의 소환을 무시해볼까 했지만 이내 자전거를 타고 달려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린더 소령은 아무 메모도 남기지 않고 외출해 버리고 없다. 피할 수 없는 멸시와 지배층의 무례한 행동에 분통이 터진 아지즈는 직각으로 교차된 지배자들의 거리를 걸으며 마치 그에게는 대영제국이 인도에 던진 그물처럼 느껴진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의 이름을 붙인 직각으로 교차된 거리들은 대영 제국이 인도에 던진 그물의 상징이었다. 아지즈는 그 그물에 걸린 기분이었다.

---

18) Richard Martin, *The Love That Failed: Ideal and Reality in The Writing of E. M. Forster* (Mouton: The Hague, 1974), p. 147 참조.

The roads, named after victorious generals and intersecting at right angles, were symbolic of the net Great Britain had thrown over India. He felt caught in their meshes. (34)

인도의 현실이 영국의 지배자들이 쳐 놓은 속박의 그물에 걸려있고,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아지즈는 지금 자신의 신발에 붙은 영국의 흙을 빨리 털어버리고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익숙한 예절과 몸짓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식민지하의 우울한 인간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지즈에게 필요한 것은 "비밀스러운 마음의 이해(The secret understanding of the heart.)"(38)인 '친절과 사랑'이다. 아지즈가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과 우정을 위한 '마음의 비밀스런 이해'의 가능성에 대한 물음"<sup>19)</sup>을 제기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인도인들이 영국인 지배자들에게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영국인과 인도인간의 불평등한 사회적 여건에는 영국인들이 지배자로서 신처럼 행세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피지배자로서의 인도인은 열등한 국민으로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이며, 이들은 우수한 영국인이 통치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서양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동양의 모호하면서도 신비스러운 요소들을 열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공립학교의 배움을 신조로 살아가는 영국인들의 근본적인 생각으로서 영국에 있을 때보다 인도에서 더욱더 번영할 것이라고 믿는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알지 못하고 단지 관습적이고 제도적인 측면과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낯선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 포스터가 그의 에세이 "영국인의 성격에 대한 기록(Note on the English Character)"에서 밝혔듯이 이것이 영국인의 '성숙된 마음'으로 영국인들이 외국에서 생활하

---

19) Frederick P. W. McDowell, *E. M. Forster* (Boston: Twayne Publishers, Inc., 1969), p. 114.

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sup>20)</sup>

소설에 등장하는 영국인인 터튼(Turton), 로니(Ronny), 맥브라이드(McBryde) 등의 관리들은 인도인들을 이해하거나 포용할 수 없는 전형적인 인물들이며, 동양을 이상화하고 정치적으로 인종 개념을 형성하여 서양과 동양을 철저히 분리한다. 이는 터튼에 의해 더욱 강조되어 지는데, 그는 영국인과 인도인이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마라바 동굴 사건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국인과 인도인 사이에 분명하고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는 이 나라에서 25년을 살았소... 그리고 그 25년 동안 영국인과 인도인이 친해지려 하면 어김없이 재난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됐소. 서로 왕래하는 건 좋소. 예의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하지만 친해지는 건 절대로, 절대로 안 돼요. 내 권위를 걸고 하는 말이오. 내가 찬드라포어에 부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만사가 순조롭고 영국인과 인도인이 서로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이러한 단순한 법칙을 지켰기 때문이오. 새로 온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들을 무시하면 바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고 수년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내가 애써 지켜 온 이 지방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 족히 한 세대 동안은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오."

"... I have had twenty-five years... and during those twenty-five years I have never known anything but disaster result when English people and Indians attempt to be intimate socially. Intercourse, yes. Courtesy, by all means. intimacy-never, never. The whole weight of my authority is against it. I have been in charge at Chandrapore for six years, and if everything has gone smoothly, if there has

---

20) E. M. Forster, *Abinger Harvest* (New York: Harcourt, 1964), p. 5.

been mutual respect and esteem, it is because both peoples kept to this simple rule. New-comers set our traditions aside, and in an instant what you see happens, the work of years is undone and the good name of my District ruined for a generation." (205)

따라서 영국인과 인도인 간의 "친밀함은 수치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식민당국의 근본적인 특징인 권위와 분리주의의 전제를 거스르는 것"<sup>21)</sup>이 되기 때문에 식민주의에서는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친밀한 개인관계를 허용하지 않을뿐더러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영국인의 태도는 인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영국인이라도 남자는 2년, 여자는 6개월이면 다 똑같아지며 하나같이 오만하고 무지하고 무감각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 인도인이 생각하는 영국여자란 하나같이 모두 거만한 존재이며, 영국남자는 잔인한 정복자에 메마른 관료일 뿐이다.

그들은 모두 똑같아지지. 누가 더 나쁠 것도 없이 말이야. 어떤 영국인이라도 2년만 지나면 터튼이나 버튼처럼 되지. 다른 건 이름뿐이지. 여자라면 6개월이면 그렇게 되고. 그들은 다 똑같아.

They all become exactly the same - not worse, not better. I give any Englishman two years, be he Turton or Burton. it is only the difference of a letter. And I give any Englishwoman six months. All are exactly alike. (26)

이런 영국인들이 모인 클럽에서 호기심이 많고 자의식이 강한 아델라(Adela)는 "진짜 인도(the real India)를 보고 싶다." (43)라고 말하는 그

---

21) Mary Lego, *E. M. Forster: A Literary Life* (London: Macmillan Press, 1995), p. 66.

녀에게 필딩은 그럼 인도인을 만나보라고 권한다. 아델라가 인도인의 마음을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서구적 교육으로 무장된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고 있다.

"물론 그녀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내 눈에는 한심한 서구 교육의 산물로 보였어요. 그녀는 나를 우울하게 했지요." ... 마치 강의라도 듣는 것처럼 인도와 삶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가끔 필기까지 하고."

"Oh, I don't know her, but she struck me as one of the more pathetic products of Western education. She depresses me... She goes on and on as if she's at a lecture-trying ever so hard to understand India life, and occasionally taking a not." (154)

인도가 매우 이국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인도가 충족시켜 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믿음은 분열만을 조장하는 인도에서 실망으로 이어지게끔 운명지어져 있음을, 또 그녀의 이런 태도가 장차 이곳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 소설에서 영국인과 인도인이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나 노력은 브리지 파티(Bridge party)와 티 파티(Tea party), 마라바(Marabar) 동굴 여행으로의 초대 등을 통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브리지 파티가 영국 고위 관리들이 주체한 공식적인 자리라면, 필딩의 티 파티와 마라바 동굴 여행은 영국 고위 관리들이 꺼려하고 염려하는 영국인과 인도인이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사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초대는 인간관계를 이루려는데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다.

...지상의 초대로는 도저히 모두 포용할 수가 없다. 모든 초대는

천상으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인류의 통합을 시도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며 그런 시도는 계층간의 벽을 더 높이는 것일 수도 있다.

... no earthly invitation can embrace it. All incitations must proceed from heaven perhaps; perhaps it is futile for men to initiate their own unity, they do but widen the gulfs between them by the attempt. (59)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분리된 영국인과 인도인의 관계는 진짜 인도를 보고 싶어 하는 아델라를 만족시키기 위해 캘린더가 마련한 자리로서 "동양과 서양 사이에 다리를 놓는 파티(A party to bridge the gulf between East and West.)"(48)인 브리지 파티에서 드러난다. 서양과 동양의 간격을 잇는 취지로 만들어진 파티에도 불구하고 파티에 손님으로 초대된 인도인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들이 있는 곳 또한 테니스 코트 한쪽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 그들 위로는 솔개들이 공평하게 떠돌고 있고, 그 위로 공평한 '하늘'만이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다.

공중에서는 솔개들이 공평하게 떠돌았고 솔개들 위로 독수리가 날아갔으며 공평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짙은 빛깔이 아닌 반투명의 하늘이 온몸으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 식의 이어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하늘 위에는 하늘 전체를 뒤덮는, 하늘보다 더 공평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 또 그 너머에는....

Some kites hovered overhead, impartial, over the kites passed the mass of a vulture, and with an impartiality exceeding all, the sky, not deeply coloured but translucent, poured light from its whole circumference. It seemed unlikely that the series stopped here. Beyond the sky must

not there be something that overarches all the skies, more impartial even than they? Beyond which again.... (62)

무심한 하늘만이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이들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의 다리는 인간의 힘으로 놓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파티에서는 터튼의 주장과 같이 영국인과 인도인 사이의 친밀감 형성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아델라(Adela)와 무어 부인(Mrs Moore)은 영국인들의 무례에 대해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는 반면, 대화를 나누는 영국 부인들의 모습은 인종차별과 우월감에 싸여 있으며, 인도인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 영국사람, 특히 영국 여자들의 경우에는 지배하는 대상의 정도를 넘어서 혐오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것은 두 종족간의 화합의 연결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보여준다. 그들은 영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지위가 높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뿐더러 영국인들은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고 무질서한 이곳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온 것이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인도에 온 것이 아니라는 상투적인 식민주의적 구호를 내세워 그들의 태도를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인도인들을 포용함으로 자신들과 융합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들과 분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저는 여기 일하러 온 거예요. 이 형편없는 나라를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요.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노동당원도 아니고 감상적인 문학가도 아니에요. 공무원이에요. 어머니께서도 제가 그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인도에서 친절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어요. 더 중요한 임무가 있으니까요."

"I am out here to work, mind, to hold this wretched country by force. I'm not a missionary or a Labour Member or a vague sentimental sympathetic literary man. I'm just a servant of the Government; it's the profession you wanted me

to choose myself, and that's that. We're not pleasant in India, and we don't intent to be pleasant. We've something more important to do. (75)

미개한 나라를 힘으로 유지하기 위해 와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의무의 수준에서만 기능하는 전문직 중류계층'<sup>22)</sup>의 영국 관료들에게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나 의지를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다. 레고(Lego)는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된 양상은 결국 인도에 거주하는 영국인 관리들이 의도하는 바라고 밝힌다.

정부의 통제 노력은 단지 그러한 분열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계산된 불열은 영국 지배의 위신을 집단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The Government's efforts at control only contributed to that maximisation. Calculated fragmentation was its method of protecting the corporate izzat, prestige, of the British Raj....<sup>23)</sup>

제국주의의 권위적 가치를 보여주는 이 같은 분열의 배경에는 동양인을 야만인이며 범죄자로 단정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즉 인종적 차이를 기준으로 동양인을 서양인과 분리시키는 것은 영국 식민 통치자들의 계산된 힘의 논리, 다시 말해 지배 논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또한 이 작품의 제국주의적 지배연술 특히,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인종적 차이에 대한 그들 자신의 태도를 투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종적 차이의 강조, 서양의 강력함과 동양의 유약함은 서양이 지배자의 지위라는 인식의 강화와 식민지 인도에 대한 영국지배의 정당성을 확인시키고 유약한

---

22) Malcolm Bradbury, "Two Passage to India: Forster as Victorian and Modern," *Aspects of E. M. Forster* (London: Macmillan Press, 1978). p. 135.

23) Mary Lego, *op. cit.*, p. 65.

피지배자를 계몽, 근대화 시켜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태도인 것이다.<sup>24)</sup>

작가의 사상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입장에서 무어부인, 아델라 그리고 필딩은 인류에 대한 화합과 조화의 관점을 견지하는 인물들이다. 모든 사람은 신 아래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무어무인과 "너무나 평범하지만 정직하고 솔직한 선의를 지닌(Too ordinary but having honest and straightforward good will.)"<sup>25)</sup> 아델라, 인종차별에 대한 편견이 적고, 우정을 통해 두 민족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필딩, 이 세 인물은 포스터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리라는 기대감을 주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모인 필딩의 티 파티는 터튼이 주체한 브리지 파티와는 다르게 정감이 넘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인종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인간관계의 허점에 대한 암시도 함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필딩이 주체한 파티에도 문화적 차이, 인종문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 등이 교묘하게 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파티 자체는 아델라와 무어 무인의 '진짜 인도를 보고 싶다'는 바람을 성취시키기 위해 필딩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인도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그 취지는 브리지 파티와는 큰 차이가 없다. 한 달 전 아지즈는 필딩에게서 차를 마시러 와 달라는 초대를 받았음에도 깜빡 잊고 답장조차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비난도 없이 다시 초대해준 그의 친절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의와 정중한 행동에 아지즈는 대단히 고마워하지만, 사실 두 영국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지즈와 고드볼이 초대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자하는 영국인과 인도인의 대립은 로니의 등장으로 표면화되어 버린다. 인도인과의 유일한 관계는 '공적인 것'으로 규정짓는 로니는 티 파티에 참석한 아지즈와 고드볼의 존재를 무시한 무례를 범한 채 무어부인과 아델라를 데리고 나가자 파티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끝이 난다.

---

24) Said, *op. cit.*, p. 84 참조.

25) Glen Cavaliero, *A Reading of E. M. Forster* (London: Macmillan Press, 1979), p. 156.

그는 두 남자에게 무례하게 굴 의도는 없었지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인도인과의 관계는 공적인 것뿐이었고 두 사람 다 그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는 사적인 개인으로서의 그들을 무시했다.

He did not mean to be rude to the two man, but the only link the could be conscious of with an Indian was the official, and neither happened to be his subordinate. As private individuals the forgot them. (106)

아지즈와 필딩이 처음 만난 티 파티에서 아지즈가 필딩에게 그의 옷깃 단추를 줌으로써 선의와 자발적인 행위 그리고 관대함 등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언어적, 문화적 간격을 잠시나마 연결할 수 있었지만, 이들의 만남도 그들이 가진 성격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에 의해 어느 선 이상으로는 접근하지 못한다. 아지즈가 자신의 셔츠 칼라 단추를 필딩에게 주는 그의 충동적 행위는 필딩의 영국적 과묵을 깨뜨리고 우정의 끈을 신속하게 잇게 된다. 이렇듯 자발적인 선의와 친절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영국인과 인도인 사이의 결속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위협을 받게 되고, 기대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은 로니와 아지즈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로니는 아지즈의 뒤쪽 옷깃 단추가 없는 것을 보고 "인도인들은 모두 그런 식이에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지요. 그 근본적인 태만함이 그들의 특징이지요.(there you have the Indian all over: inattention to detail; the fundamental slackness that reveals the race.)"(112)라고 말함으로써 판에 박힌 고정관념들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기존의 가치관은 다른 영역의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므로 넓은 이해를 위해서 고정관념은 깨어져야 한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치적 현실을 회피하는 경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무어 부인과 아델라가 인도인에 대한 인종차별 의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친절을 베푸는 것은 진정한 사회의식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무어 부인은 나이가 많고, 아델라는 이곳에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다. 필딩 역시 정치 논쟁에 대해서는 피곤함을 느끼며, 윤리에 대해서는 "도덕성도 떨어진다고 봐야겠지요.(I suppose morality does decline.)(145-46)라고 하면서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라는 하미들라의 질문에 대해 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시작이다! 정치 얘기.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군요. 나는 개인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해서 여기 온 거지요. 영국이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로선 알 수 없으니까요." ... "나도 이 자리에 있는 게 기뻐요. 그게 내 대답이고 유일한 변명거리죠. 공정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어쩌면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지요. 숨을 쉴 때마다 다른 사람의 공기를 빼앗는 것이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도 난 세상에 태어난 것이 기쁘고 여기 와 있는 게 기뻐요. 아무리 못된 불청객이라도 결과적으로 행복해한다면 얼마간 정당화될 수 있지요."

There they were! Politics again. "It's a question I can't get my mind on to," he replied. "I'm out here personally because I needed a job. I cannot tell you why England is here or whether she ought to be here. It's beyond me."... "I'm delighted to be here too - that's my answer, there's my only excuse. I can't tell you anything about fairness. It mayn't have been fair I should have been born. I take up some other fellow's air, don't I, whenever I breathe? Still, I'm glad it's happened, and I'm glad I'm out here. However

big a badmash one is - if one's happy in consequence, that is some justification." (146)

페리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영국인과 인도인의 진정한 인간관계를 지속시키는 데서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페리는 이에 대해 포스터가 고수해 왔던 자유주의가 대영제국이라는 정치적 현실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식민 상황에서 자유주의 규범이 무력하다는 것은 영국인과 인도인의 개인 관계가 파국적 실패로 드러나는 데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아마 자유주의의 무력함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그 가치의 적에게 반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The effeteness of liberal codes in the colonial situation is established in the novel by the catastrophic failure of British and Indian to sustain personal relations.... But perhaps the most eloquent demonstration of liberalism's importance is its inability to offer any opposition to the enemies of its values.<sup>26)</sup>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입장이 언제나 고정되고 획일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는 모순된 심리적 정서, 타인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이 공존'<sup>27)</sup>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 속의 영국인과 인도인의 관계는 이런 복잡한 입장과 정서가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

26) Benita Parry,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A Passage to India*," *E. M. Forster*. Ed. Jeremy Tambling (London: Macmillan Press, 1995), p. 139.

27)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 73.

## C. 마라바 동굴 사건

마라바 동굴사건은 아직 인도의 문명에 낯선 두 영국 여인인 무어부인과 아델라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식민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간의 잠재된 적대감을 극적으로 분출시키고 기독교나 이성의 한계가 가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아지즈가 "이 여행은 영국인이나 인도인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친구들끼리의 여행이니까요.(This picnic is nothing to do with English or Indian: it is an expedition of friends.)(201)라고 말한 것처럼 마라바 동굴 여행은 영국인과 인도인을 연결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이다. 그러나 이 동굴 여행은 동양과 서양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재앙으로 나타난다.

아지즈는 친구들과의 소풍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갖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반면 필딩은 그런 아지즈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아지즈, 이 여행 때문에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생각해 봤어요?"

"셋! 나의 소중한 친구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마세요. 수백 루피가 들었겠지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돈은 나가면 다시 들어오게 마련이다. 돈을 쓰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이런 유익한 우르두어 속담을 들어 본 적 있나요?"

"내 속담은 이런 것들이지요. 절약이 버는 것이다. 제때의 바늘 한 땀이 아홉 땀을 던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대영 제국은 그런 속담들을 믿지요. 모하메드 라티프 같은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는 한 당신들은 이 땅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 없어요."

"Aziz, have you figured out what this picnic will cost you?"

"Sh! my dear chap, don't mention that part. Hundreds and

hundreds of rupees. The completed account will be too awful... If money goes, money comes. If money stays, death comes. Did you ever hear that useful Urdu proverb?"

"My proverbs are: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A stitch in time saves nine; Look before you leap; and the British Empire rests on them. You will never kick us out, you know, until you cease employing M.L.'s and such." (200-01)

대다수의 동양인들처럼 아지즈는 "공손한 대접이 곧 친밀한 관계 (overrated hospitality, mistaking it for intimacy)"(181)라고 생각하지만, 필딩이 본 아지즈의 행동은 돈 낭비에 불과한 것으로 비취진다. 또한 필딩의 말에는 인도인이 이런 비합리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대영 제국이 이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인도에 더 머물러야 한다는 우월 의식 또한 숨어있다.

마라바 동굴은 지리적으로 자연적으로 분열되어 도시 그 자체에는 특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건설된 찬드라포어로 부터 20마일 쯤 떨어진 곳에 사람의 주먹과 손가락 형성을 한 마라바라는 산에 위치하고 있다. 동굴은 그 외관상으로도 인도를 특징 지우는 혼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 동굴들은 특징이라고는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Nothing, nothing attaches to them.)"(161)고 설명할 만큼 큰 무게감을 두고 서술된다. 그러면서도 동굴에 대한 자세한 묘사에 들어가게 되면 '캉캉'하고 '부웅'하는 메아리만 지닌 존재로서 멀리 떨어져 있고, 포착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수십 개씩 이어진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동굴은 서로 구분이 불가능하며 또 구분할 수 있는 아무런 특징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다른 곳의 아무리 험악한 산들이라고 해도 꼭 간직하는 그런 균형조차 유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동굴은 "의사소통의 실패이며, 인간관계의 붕괴"<sup>28)</sup>를 상징한다.

---

28) Reuben A. Brower, "The Twilight of the Double Vision: Symbol and Irony in A Passage to India,"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 Ed. Bradbury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장벽들을 허물 수 있는 무언가가 마라바 동굴에 담겨 있다. '인도의 마음인 우주의 신비'<sup>29)</sup>를 담고 있는 이 동굴에 삶의 신비와 혼돈의 모습이 모두 담겨져 있다. 스물 네 개의 입구를 가진 이 동굴은 해가 있을 때도 그 입구를 통과하는 빛이 동굴 속에 거의 닿지 않는 캄캄하고 텅 빈 공간이다. 불을 켜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천장과 바닥의 구분이 없고 사방으로 어둠을 뿌린다. 하지만 어둠을 밝히려 성냥 불을 밝히면 반들반들한 동굴벽 속에 갇힌 또 하나의 불길 이 일어난다. 두 개의 불길이 하나로 합쳐지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하나는 공기를, 하나는 돌을 호흡하려 하기에 둘은 합쳐질 수 없다.

동굴 속은 캄캄하다. 동굴이 태양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을 때조차 입구를 지나 동근 방까지 들어가는 빛은 거의 없다. 그곳엔 볼 것도 없거니와 관광객들이 5분 동안 들어와서 성냥불을 켜기 전에는 쳐다보는 눈도 없다. 성냥불을 켜면 즉시 바위 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불꽃이 일어 바위에 갇힌 영처럼 표면을 향해 움직인다. 동근 방의 벽은 놀랍기 그지없는 방식으로 매끄럽게 다듬어졌다. 두 불꽃은 하나로 합쳐지기 위해 기를 쓰지만 하나를 공기를, 하나는 돌을 호흡하기 때문에 둘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They are dark caves. Even when they open towards the sun, very little light penetrates down the entrance tunnel into the circular chamber. There is little to see, and no eye to see it, until the visitor arrives for his five minutes, and strikes a match. Immediately another flame rises in the depths of the rock and moves towards the surface like an imprisoned spirit; the walls of the circular chamber have

---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0), p. 120 참조.

29) Rukun Advani, *E. M. Forster As Critic* (London: Croom Helm, 1984), p. 28 참조.

been most marvellously polished. The two flames approach and strive to unite, but cannot, because one of them breathes air, the other stone. (161)

이 동굴 속에서는 어떤 것도 결합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래스킨(Raskin)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신은 동굴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과 직면하게 된다: 당신은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동굴에서는 무만 존재할 뿐이다.... 통합은 동굴에서 불가능하다. 정반대의 것은 여전히 분리되고 차별적이고 화합할 수 없다. 동굴은 특이하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악이다.

In the caves you come face-to-face with the oldest thing in the world: you meet something you can meet nowhere else. It is nothing you can see, feel or touch. In the caves there is nothingness.... Unity is impossible in the cave. Opposites remain separate, distinct, irreconcilable. The cave is extraordinary, and the extraordinary events of the cave outweigh everything else. It is evil.<sup>30)</sup>

동굴이 무어부인에게 삶의 신비를 펼쳐 보인다. 하지만 그 신비의 경험이 그녀에게는 공포로 먼저 다가온다. 처음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부인은 거의 실신할 뻔 한다. 사람들이 가득 찬 동굴은 냄새를 풍기고 호흡조차 곤란하다. 무언가가 그녀의 입을 막고, 혼잡과 악취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메아리가 진동하면서 벽을 타고 오르내리며 천장에 흡수된다. 설명할

---

30) Jonah Raskin, *The Mythology of Imperialism* (New York: A Delta Book, 1971), p. 259.

수 없는 그 소리를 굳이 인간의 소리로 표현하자면 '바움' 혹은 '우바움' 같은 소리이다. 순간 그녀에게 모든 것이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보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한다. 그런 그녀에게 메아리가 속삭인다. '동정, 연민, 용기', 이 모든 것은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하나이며 아무 가치가 없다고 속삭이는 것이다. '이 메아리는 소설에서 가장 큰 공포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메아리가 지금까지 그녀의 삶을 지탱해오던 가치들의 의미를 순간적으로 모두 사라지게 한다. 그러자 메아리가 또 무어부인에게 자신의 종교가 주장하던 모든 것들도 동굴의 '바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속삭인다. 따라서 이 메아리는 신비한 고차원적인 세계에 눈뜨기 위해 그녀가 가졌던 '기독교적 신앙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 상관물'로 작용한다.

하지만 갑자기 마음 언저리에서 종교가, 저 가엾고 보잘것없으며 말 많은 기독교가 나타났고, 그녀는 "빛이 있으라"에서 "다 이루어졌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모든 성스러운 말들이 '부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But suddenly, at the edge of her mind, Religion appeared, poor little talkative Christianity, and she knew that all its divine words from "Let there be Light" to "It is finished" only amounted to "boum". (198)

부인에게 이제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분 짓는 기독교의 가르침들마저도 '바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러한 이분법적인 삶이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다. "동굴의 메아리가 문명의 것이건 비문명의 것이건 모든 소리를 한가지로 만들어버리고 일순간 모든 독단적인 인간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분열을 무화"<sup>31)</sup>시켜 버린 것이다.

무어부인에게 삶의 신비를 펼쳐 보인 동굴의 메아리가 아델라에게는 그

---

31) Lionel Trilling, *op. cit.*, p. 118 참조.

너 자신과 아지즈의 삶을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행동의 위기에 대한 객관적 상관물'로서 작용한다. 인도에 도착한 후 여러 가지 혼돈의 양상을 조용히 수용해 온 무어부인과는 달리 아텔라는 인도에 온 후 주변의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나 인도의 혼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녀의 한계는 그녀를 계속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다.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혼돈에 빠진 그녀는 동굴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나를 지겹게 해.(Sight-seeing bores me.)"(193)라는 생각과 로니와의 결혼 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을 연결시키지 못한 채 동굴로 들어가 메아리를 듣게 되고 아지즈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난 그녀 마음의 혼돈된 상태 그 자체인 것이다.

필딩은 아지즈가 어렵게 준비한 마라바 동굴 여행에서 갑자기 빠져나간 아텔라가 탐탁지 않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다. 하지만 아지즈에게는 이 여행이 '영국인이나 인도인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들끼리의 여행'일 뿐이다. 영국인과 인도인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보려는 또 한 번의 노력이 대 실패로 끝나고 마라바를 벗어나 돌아오는 기차가 시체를 실은 '관'처럼 보인다.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손님들은 모두 시체처럼 보였고 기차 역시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죽은 것 같았다. 그것은 하루 네 번씩 풍경을 어지럽히는, 과학이 발달된 북쪽에서 온 관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In the twilight, all resembled corpses, and the train itself seemed dead though it moved—a coffin from the scientific north which troubled the scenery four times a day. (201)

아지즈가 마라바 동굴에서 아텔라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

면서 이 사건은 영국과 인도의 정치적 현실을 부각시키는 전환점이 된다. 이를 계기로 영국과 인도의 민족적 갈등이 혼란스럽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도인이 영국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영국의 인도 식민통치사에서 정치적으로 조성된 식민주의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샤프(Sharpe)는 바로 이 소설에 나타난 강간과 그에 대한 영국인 사회의 불안은 인도인이 영국 여성을 공격했다는 과거 식민주의적 담론에 의해 역사적으로 조작된 인종 개념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식민주의가 허구적으로 만들어 낸 동양인의 모습에 의해 파생된 영국인의 공포를 보여준 것이다. 샤프는 포스터가 이 사건을 다룸에 있어 제국주의 국가의 심리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은 강간을 둘러싼 드라마에서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뒤섞임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두려움과 환상을 재현한다.

E. M. Forster's *A Passage to India* reenacts in the drama surrounding a rape the fears and fantasies of an imperial nation over the intermingling of two races,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sup>32)</sup>

아지즈의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에서 아델라의 눈에 처음 들어온 인물은 인도에서는 가장 비천한 신분인 부채를 부치는 하인이다. 거의 벌거숭이 상태로 높은 단 위에 앉아 바람을 일으키는 그의 건강한 육체가 마치 신인 듯이 보인다. 법정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어주면서 정작 자신은 그 바람을 한 점도 받을 수 없는 이 사회의 가장 비천한 인물이 마치 신처럼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이 법정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비천한 인물의 "완벽한 육체가 보여주는 신성함이 아델라에게 사회가 정한 분

---

32) Janny Sharpe, "The Unspeakable Limits of Rape: Colonial Violence and Counter-Insurgency," *Genders* 10, 1991, pp. 25-26.

류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보여준다."<sup>33)</sup>

근사한 몸을 지닌 그는 거의 별거숭이 상태로 법정 뒤쪽의 높은 단에 앉아 있었으며 아델라의 눈에는 재판의 진행을 감독하는 것처럼 비쳤다. 그는 천한 태생의 인도인들에게서 가끔 볼 수 있는 힘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이상한 종족이 불가촉천민으로 운명 지어졌을 때, 자연이 다른 곳에서 이루었던 육체적인 완성을 떠올리고는, 사회가 정한 분류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신을 - 많이는 아니고 이곳저곳에 하나씩 - 보낸 것 같았다. 이 사내는 어디서든 눈에 띌 것이고 엉덩이도 가슴도 볼품없는 찬드라포어의 범인들 사이에서 신처럼 두드러지지만, 이 도시의 쓰레기를 먹고 살아왔으며 쓰레기 더미에서 최후를 마칠 것이다. 리듬감 있게 선풍기 줄을 잡아당기고 풀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용돌이 바람을 보내면서 자신은 그 바람 한 점 받지 못하고 있는 그는 인간의 운명과 동떨어진, 남자의 모습을 한 운명의 여신이요 영혼들을 키로 까부르는 존재처럼 보였다.

He had the strength and beauty that sometimes come to flower in Indians of low birth. When that strange race nears the dust and is condemned as untouchable, then nature remembers the physical perfection that she accomplished elsewhere, and throws out a god-not many, but one here and there, to prove to society how little its categories impress her. This man would have been notable anywhere: among the thin-hammed, flat-chested mediocrities of Chandrapore he stood out as divine, yet he was of the city, its garbage had nourished him, he would end on its rubbish heaps. Pulling the rope

---

33) Vasant A. Shahane, "Forster's Inner Passage to India", *E. M. Forster: Centenary Revaluation*, eds. Judith Scherer Herz & Robert K. Martin (London: Macmillan Press, 1982), p. 274 참조.

toward him, relaxing it rhythmically, sending swirls of air over others, receiving none himself, he seemed apart from human destinies, a male fate, a winnow of souls. (266)

그 하인에게는 이 법정에서 인간들이 일으키는 행위는 이기적인 분별심이 일으키는 먼지일 뿐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그 하인이 부채질로 일어나는 먼지들을 다시 아래로 가라앉히고 있다. 그의 자연스러운 신성함이 아텔라에게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책망하고 있다.

주인공들에게 삶의 중요한 경험을 제공한 그 동굴이 '불교 동굴'이라는 것이 맥브라이드 경감이 사건의 현장을 설명하기 위해 퍼든 마라바 동굴의 입면도에 의해 밝혀진다. 재판도중 아지즈가 강간 미수뿐만 아니라 한 영국 부인이 들어간 동굴에 하인들을 몰아넣었다고 경감이 주장한다. 아지즈의 친구인 변호사 마무드 알리가 강간에다 살인죄까지 덮어씌울 작정이냐고 흥분하지만 그 영국 부인이 무어부인이라는 말에 그녀가 가련한 인도인들의 친구였으므로 피고인의 증인으로 요청하지만 로니가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영국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그녀가 진실을 알기에 법정에서 서지 못하게 감금해 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인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무어부인의 이름이 '에스미스 에스무어'라는 인도식 이름으로 법정 주위에 모여든 군중들에게 번져가면서 소란이 일어나고, 이제 법정에서 영국인들의 권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지중해에서 사망한 무어 부인이 아지즈를 구할 '힌두 여신'이 되어 인도의 법정에서 다시 살아난다.

베르그송은 "등장인물들에게 결합된 중요한 형태를 주는 것은 기억이며, 모든 의식은 이미 기억(Your perception, however instantaneous, consists then in an incalculable multitude of remembered elements; and in truth every perception is already memory.)"<sup>34)</sup>이라고 설명한다.

무어부인이 이제 '기억'이라는 한 형태로 인도의 법정으로 유회한다. 무

---

34) Henry Bergson, *Matter and Memory*, trans. Nancy Margaret Paul and W. Scott Palmer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2004), p. 194.

어부인이 이름이 법정에 떠오르는 순간 부인에 대한 '기억'으로 아델라는 제정신을 찾게 된다. 그러자 아델라에게 그 운명의 날이 세세한 부분까지 되살아나고 '지루하다'고만 느꼈던 그 여행의 모든 장면이 아름답고 뜻 깊은 장면들로 찾아온다. 마치 부채에서 나온 바람이 그녀의 등을 떠미는 듯 진실의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고 아지즈가 무죄이며 자신의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를 내내 괴롭히던 메아리가 완전히 사라진다. 마침내 "그녀[무어부인]의 사랑과 진실의 힘이 정의가 되어 인도대중들에 의해서 자신의 친구를 구하러"<sup>35)</sup> 온다. 그녀의 영혼이 꺼지지 않고 아델라에게 진실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하여 결국 아지즈가 무죄임을 밝힌다. 비어는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의 삶을 방해하게 될 가련한 아델라의 각성과 자칫 인생을 망쳐 버릴 위기에 처한 아지즈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돌아오는 부인의 영혼은 꺼지지 않는 구원의 형태가 된다고 주장한다.<sup>36)</sup>

결국 동굴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아델라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동굴로 들어가기 전 아지즈의 육체적 매력에 빠진 아델라에게 로니와의 사랑이 없는 결합이 공포로 여겨졌고 그것이 망상을 일으킨 것이다. 억압된 육체적 사랑에 대한 환상이라는 미혹이 일으킨 망상의 불길처럼 빈 동굴 벽에 투영된 것이다. "동굴 벽에 반사된 불꽃처럼 아델라의 악의 고삐를 풀어버린 메아리는 개별의식의 청각적 등가물"이라고 메킹키가 설명한다.

The echo, like the mirrored flame of which it is the auditory equivalent, is the product of individual consciousness: it is another sensory impression within the illusory and finite world.<sup>37)</sup>

35) Barbara Rosecrane, "A Passage to India: Forster's Narrative Vision,"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E. M. Forster's A Passage to India*, eds. Harold Bloom & Kim Welsch (New York: Chelsea Houses Publishers, 1987), p. 78.

36) Beer, *op. cit.*, p. 159.

아델라가 망상의 불길을 붙어 끄자 그 메아리가 사라진다. 아델라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와 마주한다. 이제 망상이 일으킨 불길을 꺼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손가락과 주먹으로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동굴의 모습이 곧 모든 분별상을 붙여 끈 하나의 완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델라와 아지즈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시도가 완성되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영국사회의 체제 속에 갇혀 있고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델라가 동굴 여행으로부터 드러나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과 현실에 대해 혼돈을 느끼는 곤경에 갇히게 되기 때문이다. 영국인으로서 솔직하게 인도인 아지즈의 결백을 선언하는 것이 식민이데올로기를 거스르는 주체적 행동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한 양상을 띤다. 이는 아델라가 인도를 바로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 한계를 깨달은 것에 대한 고백이었으며, 인도를 이해하고자 하였을 지라도 그 본심이 지극히 충동적이고 식민이데올로기의 반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마라바 동굴 여행과 재판은 모든 것을 분열시키는 식민지 인도정신에 대한 도전이었고, 두 민족이 겪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대립으로서 아지즈의 도전은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간다. 동양과 서양 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아지즈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이 재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던 개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 따라서 영국인과 인도인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을 야기시키며, 그들의 사적인 인간관계들 역시도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힘에 의해 모두 끊어지게 된다.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의 인물들 간에 어렵게 이루었던 우정이 결국은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 민족주의와 정치적 현실이 진정한 우정을 가리는 분별심이라는 장벽을 쌓아올린 것이다. 제국주의적 지배가 실재하는 인도에서는 한 인종이 다른 인종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도, 그들의 의사소통은 정치성이 없을

---

37) James McConkey, *The Novels of E. M. Forster* (Connecticut: The Shoe String Press, Inc., 1971), p. 149.

때 제한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총체적인 식민 상황의 인식이라는 정치성이 개입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개인관계나 사회 조직 또는 종교적 시각을 통해서든 인간의 질서 추구는 기껏해야 부분적이고 그것 또한 불안정하다. 이런 질서의 붕괴는 자연형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의 자연풍경은 질서와 명확함에 대한 인간본능을 좌절시킨다.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찬드라포어를 비추는 강한 태양은 파괴적일 정도로 더 뜨거워지고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창조하고 파괴해버리는 우주의 상징이 되며, 도시에는 먼지와 병이 생기게 된다. 인도의 땅들이 독성으로 물든 해악성을 띠고 있다. 심지어 찬드라포어로 돌아오는 기차조차도 시체들을 실은 관처럼 보인다. 그리고 원시시대로부터의 혼돈을 나타내는 마라바 언덕은 인간들을 혼돈 속으로 몰고 감으로써 이성적 사고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좌절시킨다. 마라바 동굴 사건 이후, 다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하얀 페인트를 이용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자고 하는 로니의 주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거부하는 인도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라바 동굴 사건을 통해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로 바뀌게 된다. 우선 무어부인과 아지즈의 관계는 무어부인의 죽음과 더불어 외형적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필딩과 아지즈는 아지즈가 필딩에게 죽은 아내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를 이룰 수 있었지만 재판 후 필딩이 아델라에게 친절하게 대하자 아지즈는 필딩이 아델라의 손해배상금을 노리고 그녀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그를 설득한 것이라고 '의심과 오해'를 하게 된다.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척받고 온갖 오해와 모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지즈를 변호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의심과 오해를 무시한 채 필딩이 영국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그들의 개인적 유대관계는 끝나게 된다. 이처럼 정치에 연루되면서 사적인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 래스킨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는 영국과 인도 사이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없다."<sup>38)</sup>고 밝힌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사적인 것이란 없다.(Nothing's private in India.)"<sup>(54)</sup>라는 로니의 말은 개인적이고 비정치적인 유대관

계가 인도에서 어떤 결말을 맺을 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소설은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식민상황이라는 현실과 서양의 가치들이 배타성 등으로 그 가능성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영국인들이 전략적으로 인도인들과의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거부하고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특성을 지닌 인물들조차도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않은 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38) Raskin, *op. cit.*, p. 23.

## IV. 이질적 민족의 화합과 조화의 가능성

배타적 감정이 표면화되어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현실적 문제가 된 식민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화합이나 조화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화합과 조화의 희망은 존재하며 그 가능성도 제시되어진다. 필딩과 아지즈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종족 감정을 배제한 순수한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비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아지즈는 하미둘라의 집에서 벌어진 영국인과 인도인의 우정 가능성에 대한 토론에 "영국인 얘기는 왜 해요? 왜 그들과 친구가 되는 문제에 신경 써야 되는 거죠?(Why talk about the English? Why be either friends with the fellows or not friends?)"(29)라며 영국인에 대해 배타적이지도 않고 인도인에 대해 국수적 민족주의를 취하지도 않는다. 필딩도 역시 영국의 인도 통치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개인적으로 일자리가 필요해서 여기 온 거지요. 영국이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I'm out here personally because I needed a job. I cannot tell you why England is here or whether she ought to be here. It's beyond me.)"(146)라고 할 정도로 정치문제에 무관심하다.

정치성이 배제될 때만 진정한 인간관계가 가능하다는 예는 메이든 광장에서 아지즈와 영국인 소위의 만남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서로 함께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 친근감을 느끼고 순수한 이해와 교감을 나눴다. 그러나 경기를 끝내고 현실로 돌아오자 그들이 처한 정치적, 사회적, 인종적 상황을 다시 인지하게 된다.

고삐를 당기는 그들의 눈에서 우정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러나 운동이란 것은 일시적인 불꽃만을 일으킬 수 있기에 몸의 열기가 식으면서 우정도 식었다. 국적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것이 독기를 뿜기 전에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 "저들이 모두

저 사람만 같다면." 둘은 각자 그렇게 생각했다.

The fire of good fellowship in their eyes. But it cooled with their bodies, for athletics can only raise a temporary glow. Nationality was returning, but before it could exert its poison they parted, saluting each other. "If only they were all like that," each thought. (84)

영국인이든 인도인이든 그들이 모두 폴로 경기를 할 때와 같았으면 하고 바라는 이유는 그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엔 다른 국익이나 정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만 순수한 인간 상호간의 교감과 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지즈가 체포된 후 영국인과 인도인의 정치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클럽에 모인 영국인들 가운데 메이든 광장에서 아지즈와 폴로 경기를 했던 영국인 소위가 군대 주둔을 피력한다. 그는 마라바 동굴 여행 중에 아지즈에게 벌어졌던 사건의 전말에는 진정한 관심도 없이, 그 사건의 범인으로 아지즈를 의심하고 인도인에 대한 영국인의 지배자로서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서머스(Summers)는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다른 시대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지금은 아니다."<sup>39)</sup>라고 말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지배가 실재하는 인도에서는 한 인종이 다른 인종에게 친밀감을 느낀다고 해도, 그들의 의사교통은 정치성이 없을 때 제한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총체적인 식민 상황의 인식이라는 정치성이 개입될 때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영국인 소위와 마찬가지로 로니 또한 인간관계에서 정치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무어부인과 아델라가 인도에 도착 후 로니로부터 받은 느낌은 그가 학생시절에 지냈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위엄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로니에 대해 터튼은 "우리가 원하는 유형이고 우리와 하나

---

39) Claude J. Summers, *E. M. Forster* (London: Frederick Ungar, 1983), p. 196.

라는 거지요!(He's the type we want. He's one of us.)"(45)라고 평한다. 영국인 관리 중에 가장 속이 깊다는 맥브라이드도 마라바 동굴 사건에 있어서 처음부터 아지즈의 결백을 믿지 않고 인도인 범죄자로 아지즈를 지목한다. 터튼이나 맥브라이드 등으로 대표되는 다른 영국인 관리들도 근본적으로 인도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다른바 없다.

인종적 감정이 없는 필딩과 아델라의 세계도 삶의 신비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 필딩은 교육에 신념을 갖고 그가 누구를 가르치는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인도인들을 가르치는 것도 꺼리지 않는 자유주의자이다. 필딩이 인도인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은 그의 뛰어난 인성 덕분으로, 이것은 그의 장점인 동시에 한계가 된다. 그는 이성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그에게는 혼돈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도가 갖고 있는 신비도 그에게는 무의미한 것이거나 혼돈인 것이다. 또한 논리와 이성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아델라는 신비의 영역을 수용할 능력이 없고, 인도의 참모습을 보기를 원했지만 인도를 언제나 '벽'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 이런 성격의 아델라가 인간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결과이다.

정치성을 배제한 채 서로에게 호의를 지니고 우정을 나누었던 아지즈와 필딩의 관계는 아지즈의 재판 이후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정치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한 필딩과 아지즈는 그들의 관계에서도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며 급기야는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해지지 못한 데에는 아지즈의 극단적인 감정주의가 주원인이 되지만, 이성적인 필딩의 한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한계는 인간관계에서 친절과 사랑이라는 즉 '비밀스러운 마음의 이해'의 결여로 나타난다. 그것은 추리가 아니라 직관을 통한 이해이며, 무엇보다도 정적인 공감을 기반으로 한 마음의 소통을 뜻한다. 무어부인이 아지즈와 단 세 번 밖에 만나지 않았으면서도 그의 진심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다.

무어부인과 아지즈의 첫 만남은 모스크에서였다. 영국인 관료와 그 부인

들의 전형적인 지배자로서의 거만하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모욕을 당한 아지즈는 회의적인 기분에 싸여 방문한 모스크에서 우연히 영국인 무어부인을 만나게 되고, 직감적으로 그녀와 우정어린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그녀 또한 그간의 영국사회에서 사라져 버린 인간 본연의 선함을 그에게서 발견하게 되며, 순간적으로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돌연한 일체감이, 천체들과의 동질감이 저수지를 지나가는 물처럼 이 늙은 여인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묘한 신선함을 남겼다.

A sudden sense of unity, of kinship with the heavenly bodies, passed into the old woman and out, like water through a tank, leaving a strange freshness behind. (50)

통찰력을 지닌 무어부인과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아지즈가 불신과 오해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직관을 통해 맺어졌기 때문이다.

“부인께선 저를 이해하시는군요.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아, 다른 사람들도 부인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어부인이 좀 놀라면서 대답했다.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잘 이해하는 편은 못 돼요. 그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만 구분할 뿐이지요.”

“그렇다면 부인은 동양인이시군요.”

"You understand me, you know what others feel. oh, if others resembled you!"

Rather surprised, she replied: "I don't think I understand people very well. I only know whether I like or dislike them."

"Then you are an Oriental." (42)

이처럼 영국인이면서 기독교인이지만 그녀의 사고는 동양적인 것에 더 접근해 있다.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그녀의 방식은 아지즈와의 만남처럼 직관적이며 직접적이다. 아지즈와 무어부인은 전 작품을 통해 세 번의 만남 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통하는 직관을 통한 이해로 맺어졌기에, 그녀는 아지즈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는 무어부인을 생각하며 아델라에게 받으려고 했던 손해배상금을 포기한다. 무어부인이 아지즈의 투옥과 재판과정에서 직접적인 개입이나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 그녀의 이름이 주술적 의미에까지 붙어서 인도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또, 2년이 지난 후에 그녀의 자녀인 스텔라(Stella)와 랠프(Ralph)를 통해 아지즈와 필딩의 오해를 풀어주는 상징으로 재등장하기도 한다. 재판을 통해 영국인과 인도인들은 정치적이며 인종적 입장에서 서로의 뚜렷한 입장을 취하며 대립하게 되는데, 어느 편에도 속하기를 원치 않던 필딩조차도 이미 아지즈의 개인의 문제를 떠나 영국인 대 인도인의 정치적 입장을 택해야만 했다. 그러나 무어부인만이 이런 정치적 입장과 중간자로서 초연한 자세를 갖는다. 이런 그녀의 태도는 부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조화를 모색하는 사람은 한 쪽과 다른 쪽의 분열이 극단적으로 대립될 때 초연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행동적 양식을 제시하기 이전에 한 단계씩 각자가 고수하는 극단에서 물러나 초연해야 하는 이상적인 자세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어부인은 찬드라포어와 마라바 동굴에서 겪은 그녀의 경험이 자신이 인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봄베이로 가는 도중에 느끼게 된다. 그녀가 인도를 마지막으로 볼 때의 장면은 그녀의 인도에 대해 갖은 부정적인 시각을 재평가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곳의 풍경은 햇빛에 탄 듯하고 하얗게 표백되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음울해 보이지 않으며, 그곳의 집들과 절들은 파괴될 수 없는 삶의 증거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그녀는 상당히 많은 인도를 자신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자신이 경험한 인도와는 상당히 다른 많은 인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봄

베이의 거리에서 그녀를 스쳐가는 수 백개의 인도가 서로 얽힌 것을 풀어 내기를 희망한다. 이 종결부는 무어부인의 경험에 대한 재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그녀가 죽은 후 삶을 고양시키는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펼치도록 해주는 것이다. 항구에 줄을 선 채 손을 흔드는 야자수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당신은 고작 하나의 메아리가 인도의 전부라고 생각했나요? 마라바 동굴이 다라고 여겼나요? 우리는 그 동굴들과 무엇이 같을까요, 아시르가르는 그 동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안녕!

So you thought an echo was India: you took the Marabar caves as final? What have we in common with them, or they with Asirgarh? Good-bye! (257-58)

그녀는 이곳에서 활발함과 다양함으로 혼합된 세계를 보지만 마라바 동굴에서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부움'으로 변해 버리는 세계를 경험했던 것이다.

인도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신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인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한 이 소설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저는 신비를 싫어해요." 아델라가 선언했다.

"우리 영국인들이 그렇지요."

"제가 신비를 싫어하는 건 영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에요." 아델라가 바로 잡았다.

"나는 신비는 좋아하지만 혼돈은 싫어요." 무어부인이었다.

"신비가 곧 혼돈이죠.... 신비는 혼돈의 거창한 표현일 뿐이죠. 어떤 쪽이든 들쭉서서 좋을 건 없지요. 아지즈와 저는 인도가 혼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I do so hate mysteries." Adela announced.

"We English do."

"I dislike them not because I'm English, but from my own personal point of view," she corrected.

"I like mysteries but I rather dislike muddles," said Mrs. Moore.

"A mystery is a muddle... A mystery is only a high-sounding term for a muddle. No advantage in stirring it up, in either case. Aziz and I know well that India's a muddle." (97)

필딩은 인도를 혼돈으로 이해하며 "신비는 혼돈이다."라고 까지 말하고, 아델라도 "나는 신비스러운 것이 너무 싫어."라고 말하지만 무어부인은 "나는 신비를 좋아하지만 오히려 혼돈이 싫다."고 말한다. 혼돈과 신비는 서로 혼동될 수 없는 상반된 것으로 이런 등장인물들의 인도를 이해하는 태도는 이성과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삶을 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 이 세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문제들은 질서 있게 배열될 수 없으며, 그 문제들에 대한 정답이나 완벽한 해결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삶은 인도를 보는 시각처럼 혼돈 혹은 신비로 수용되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삶의 문제들을 대하는 방법과 원칙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대한 관점은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결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이란 아마도 혼돈이 아닌 신비일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수많은 분열과 싸움, 그리고 소동이 뒤엉킨 수 백개의 인도가 아마도 하나이며 그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우주도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이미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고, 그 이상의 문제는 그들의 차원에서는 이해 불가능한 일이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판단능력 또한 결여되었고 그들의 정신영역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도를 혼돈과 신비 중 어느 한 쪽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우주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삶을 혼돈으로만 여길 때에는 분열의 양상만

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분열의 세계에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깊이 뛰어들다. 그러나 이미 분열된 세계에서 각각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인간은 서로 자기편으로만 끌어들이려 함으로써, 결국 또 다른 분열만을 초래할 뿐이지만 그런 노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이란 불가능하다. 반면에 삶을 신비로 바라볼 때 분열된 조각처럼 보이는 것들은 무한하고 광대한 우주 속에서 총체적인 하나의 통일체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조화의 추구는 혼돈보다는 신비의 영역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인도를 혼돈이라고 보는 시각은 서양의 이성과 형식에 대한 신념에 고착된 시각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필딩이 잠시 엿보고 감탄했던 인도의 한 면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것은 획일적이고 배타적인 서양의 가치와는 명백히 다르다.

인도에는 옛 제국시절의 문명이 다시 찾아와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데, 그 모습은 위대한 예술 작품이나 업적들이 아니라 좋은 가문에서 자란 인도인들이 앉거나 누울 때의 동작들에서 엿볼 수 있다. 인도 전통 복장을 한 필딩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든 동작들이 급조된 것임을 실감한 반면, 나와브 바하두르가 음식을 향해 손을 뻗거나 누레딘이 노래에 박수를 보내는 동작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 여유로운 동작이야말로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요 생활 속의 요가라 할 수 있다. 요가의 정지 동작에는 서양이 교란시킬 수는 있으나 배울 수는 없는 문명이 숨 쉬고 있다.

Civilization strays about like a ghost here, revisiting the ruins of empire, and is to be found not in great works of art or might deeds, but in the gestures well-bred Indians make when they sit or lie down. Fielding, who had dressed up in native costume, learnt from his excessive awkwardness in it that all his motions were makeshifts, whereas when the

Nawab Bahadur stretched out his hand for food or Nureddin applauded a song, something no development. This restfulness of gesture—it is the Peace that passeth Understanding, after all, it is the social equivalent of Yoga. When the whirring of action ceases, it becomes visible, and reveals a civilization which the West can disturb but will never acquire. (304)

인도의 차이와 독창성에 근거해서 서구 문화의 권위적 범주에 도전하여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이다. 포스터는 친구인 달링에게 보낸 편지에서 “복잡한 크리슈나의 전설은 둘이 결합할 상태를 상징” 40)한다고 한 것처럼 아지즈와 필딩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전 우주 만물의 화합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조화의 추구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불신으로 상처 입은 아지즈와 필딩은 아지즈의 재판 후 마우에서 다시 만나 화해하기까지의 2년이라는 시간은 각자의 결함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기간이 된다. 아지즈는 마라바 동굴 사건 이후로 영국인이 더 이상 모욕할 수 없는 이슬람 국가로 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던 그가 힌두 자치국인 마우에 정착한 것은 동굴 사건 이후 편협해졌던 그의 포용력의 성장을 보여준다. 그의 포용적인 태도는 "나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으며 존중할 뿐입니다.(I study nothing, I respect.)"(352)라는 그의 취임 연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영국으로 돌아갔던 필딩이 장학사로서 그의 가족과 함께 인도를 방문했지만, 필딩이 아델라와 결혼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아지즈는 다시는 그녀를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방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필딩이 무어부인의 딸인 스텔라와 결혼한 사실을 밝히며 아지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아지즈는 "나는 남자든 여자든 영국인과 친구가 될 생각은 없다.(I wish no Englishman or Englishwoman to be my friend.)"(364)고 밝히는데 이는 무어부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열렸던 그의

---

40) Furbank, *op. cit.*, p.124.

마음의 문이 다시 닫혀 버렸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지즈는 2년 전 아델라가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용감했었는가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행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기도 한다. 또한 램프를 배에 태우고 크리슈나 축제를 구경시킬 때 보이는 그의 침착성과 자제력은 소설 초반에 보인 충동적이고 감정주의적인 아지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필딩도 전에는 감정적인 아지즈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Different people had different point of view.)(383)는 사실을 깨닫는다. 필딩의 이런 변화는 무어부인의 딸이면서 직관적인 사랑에 관한 한 그녀의 계승자라고 볼 수 있는 스텔라와의 결혼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필딩과 스텔라의 결합은 필딩의 이성주의와 무어부인의 직관적인 사랑의 결합임을 보여준다.

스텔라와 함께 온 램프가 벌에 쏘였을 때, 아지즈는 약을 가져다주기 위해 그들이 묵고 있는 곳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램프를 통해 아지즈는 무어부인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적대감을 몰아낸다. 램프 역시 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인 이해력을 지닌 사람임을 발견한다.

"처음 보는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언제나 알 수 있다고요?"

"그래요."

"그럼 당신은 동양인이군요."

"Can you always tell whether a stranger is your friend?"

"Yes."

"Then you are an oriental." (374)

"당신은 동양인이군요.(You are an oriental.)"라는 말은 전에 모스크에서 아지즈가 무어부인에게 했던 말로서 램프가 로니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지즈의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과 새로운 화해의 장이 곧 마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무어부인에게서 느꼈던 것처럼 램프에게

개인적 유대관계의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램프의 영향력은 무어부인이 아지즈에게 끼친 것에 비해 미미하지만 정신적 연결고리를 느끼게 한다.

그것은 이슬람 사원에서 처음 무어부인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었고 많은 고통을 당한 뒤에야 그는 그 악연의 고리를 끊었다. 다시는 영국인과 친구가 되지 않으리라! 이슬람 사원, 동굴, 이슬람 사원, 동굴. 그런데 그 고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다시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 되는 걸까?

Those words - he had said them Mrs Moore in mosque at the beginning of the cycle, from which, after so much suffering, he had got free. Never be friend with the English! Mosque, caves, mosque, caves. And here was starting again... Was the cycle beginning again? (375)

아지즈는 영국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많은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에서 영국인과 친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정신적 영향을 끼친 무어부인의 아들인 램프에게 연고를 건네면서 그녀와 맺은 것과 같은 관계가 다시 시작되려는 것을 불안하게 느낀다.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되자, 아지즈는 필딩과의 연결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부여된다. 무어부인과 마라바 동굴 여행을 했듯이 그녀의 아들 램프와 함께 배를 타고 필딩과 스텔라를 찾아 나선다. 힌두교 축제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물결의 출렁거림으로 아지즈와 필딩이 타고 있던 배가 충돌한다. 미미한 충돌이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스텔라가 처음에는 남편인 필딩에게로 쓰러졌다가 다시 아지즈에게로 쓰러지는 그녀의 동작 때문에 얇은 물이긴 하지만 배가 뒤집혀서 그들은 물에 빠지고 만다. 이것은 그들 아이에 존재하는 과오와 불화를 씻어버리고 그들이 전처럼 하나가 되는 '세례의식'<sup>41)</sup>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지즈와 필딩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는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지만 인도인과 영국인이라는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장애요인이 그들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무어부인의 방문을 시작으로 스텔라의 방문으로 이어지는 이 소설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아지즈와 필딩의 관계는 발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필딩에 대한 아지즈의 증오도 다 풀려 없어진 추상적인 증오에 불과하다는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될 거예요."

"왜 지금은 친구가 될 수 없지요? ...나도 원하고 당신도 원하는 데."

그러나 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서 멀어졌고, 땅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바위들을 내밀어 그들이 나란히 달리지 못하도록, 앞뒤로 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사원들도, 저수지도, 감옥도, 궁전도, 새들도, 짐승의 썩은 시체도, 영빈관도, 그들이 숲에서 나와 마우를 내려다보았을 때 눈에 들어온 모든 것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백개의 목소리로 "아니, 아직은 안 된다."고 말했고, 하늘도 "아니, 여기선 안 된다."고 말했다.

"You and I shall be friends."

"Why can't we be friends now? ...It's what I want. It's what you want."

But the horses didn't want it—they swerved apart; the earth didn't want it, sending up ricks through which riders must pass single file; the temples, the tank, the jail, the palace, the birds, the carrion, the Guest House, that came into view as they issued from the gap and saw Mau breath: they didn't want it, they said in their hundred voices, "No

---

41) Roger Ebbaston & Neale Catherine,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 (Penguin Books, Harmondsworth, 1986), p. 83.

not yet," and the sky said "No, not there." (388)

'왜 지금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냐'는 질문에 땅과 하늘은 '아니, 아직은 안 된다. 아니, 여기선 안 된다'라고 답한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 제기된 "식민지배자인 영국인과 피지배자인 인도인이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It is possible to be friends with an Englishman.)"(26)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제국주의 하에서 영국이 인도로부터 물어난 후, 두 민족 간의 관계가 동등해졌을 때 우정이 가능하다는 일시적인 유보를 뜻한다. 이는 인간관계가 종속된 상황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의 화합이 가치 있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모욕이 없어야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견하는 것이다. 결국 『인도로 가는 길』에서 인간관계의 조화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식민체제 하에서는 자유로운 개인관계, 특히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진정한 인간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식민현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비평가들은 트릴링이나 리비스가 언급한 포스터의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인도로 가는 길』에서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단일성을 찾는 경향이 주도적이었다.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에 입각한 비평에서는 힌두 축제인 크리슈나 축제를 상징적인 화합으로 간주하여 이 소설 이전의 소설들의 인간화합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여 이 소설을 평가해 온 반면, 현대의 탈식민주의 비평가들은 식민현실을 외면한 미약한 결론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서머스는 이러한 "결말의 결여는 텍스트가 지향하는 화해와 상황의 불가해함 사이의 긴장이며 이 소설의 화해가 아니라 식민 상황이라는 현실 인식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이 소설은 화합이 아니라 한계의 의식에 도달한다. 결론에서의 화해는 부드럽지만 조건이 붙여진 것으로, 스스로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The novel arrives not at a synthesis but at a recognition of

limitations. The reconciliations of the conclusion are tender but qualified and self-questioning.<sup>42)</sup>

『인도로 가는 길』은 모든 대립과 혼돈을 화해시키는 구조적 패턴을 취하는 대신에 화합의 길을 비끼어간다. 오히려 포스터는 달링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간의 현실은 인간들의 헤어짐이라고 말한다.

『인도로 가는 길』은 그런 '헤어짐'을 표현한다.... 내가 보기에는 개인들은 외로움과 친밀감을 번갈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같다.... 킹스 대학의 이념은 사람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킨다: 그것이 결점이다. 우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풍부하다. 그리고 애정은 전보다 진전되기 어렵고, 또한 더 영예롭다.

*A Passage to India* describes such a going away.... It seems to me that individuals progress alternately by loneliness and intimacy.... The King's' view over-simplified people: that I think was its defect. We are more complicated, also richer, than it knew, and affection grows more difficult than it used to be, and also more glorious.<sup>43)</sup>

조화를 위한 노력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아지즈와 필딩을 통해 추구된다. 그러나 개인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선 정치적 환경은 그들을 각각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고, 그 우정의 가능성은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될 거예요.(You and I shall be friends.)”(388)라는 아지즈의 말처럼 미래에 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현실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방해할 때, 그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국이 인도로부터 물러나야 함을 주장하는 포스터의 작가 의식이 엿보인다.

---

42) Claude J. Summers. *op. cit.*, p. 183-84.

43) Furbank, *op. cit.*, p. 124 재인용.

현실적으로 아지즈와 필딩, 두 사람의 완벽한 화합은 유보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정치적, 민족적 편견이 없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강조되어지며, 또한 삶, 그리고 인간애 등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 요구되어진다.

## IV. 결 론

인류사의 숱한 분쟁사를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갈등과 혼란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분열 양상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분열의 회오리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이런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호이해관계를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의미의 우주적 사랑과 감성이 풍부한 상상력과 직관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개인과 개인이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갈등구도를 형성시키는 차별이라는 장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관용과 사랑'을 통해 완전한 삶을 이룰 때 비로소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인도로 가는 길』에서 포스터가 식민 상황을 배경으로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창조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소설은 영국인과 인도인, 다른 두 인종간의 단편적으로 조각나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조화와 화해를 시도하고자 한 작품으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입장에서 인물들의 성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sup>44)</sup> '영국인과 인도인이 친구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놓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의 "아니, 아직은 안 된다. 아니, 여기서 안 된다."라는 대답을 통해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정치적 대립과 문화적 차이 등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마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되었다.

포스터는 영국인과 인도인의 단절을 자연이나 배경 등으로 더욱더 강한 대조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내용의 전개를 미리 암시하기도 하고, 사물의 직관적인 판단을 돕게 하는 것이다. 결국 분열된 상황에서의

---

44) Wilfred Stone, "The Subversive Individualism," Judith Scherer Herz and Rober K. Mart (eds.), *E. M. Forster: Centenary Revaluations* (London: Macmillan, 1983), p. 15.

무의미한 몸짓만을 보여주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은 찬드라포어의 영국인과 인도인의 거주지의 묘사 장면에서 잘 그려져 있다. 대조적인 두 민족의 거주지 묘사 주에 두 거주지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아치형의 하늘이 전달하는 의미가 무의미한 말보다 더욱더 많은 의미를 전달함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인도는 표면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계급, 종교, 인종, 문화 및 사상 등이 분열되어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찬드라포어는 기차길을 사이에 두고 지배자인 영국인과 피지배자인 인도인의 거주지가 대치되어 있어 두 민족간의 분열과 불평등을 인식하게 해준다. 또한 두 민족 간의 분열을 더욱더 조장하는 것은 상투적인 제국주의를 내세워 인도인에 대한 그들의 차별적인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영국인들이 의해서이다.

인간들이 조화로운 화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브리지 파티와 티 파티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파티는 허위적이고 위선적인 영국인과 로니의 무례한 방문으로 서로간의 이해를 막고 진정한 조화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실패로 끝난다. 또 마라바 동굴 여행은 영국인과 인도인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재앙으로 나타나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킨다.

정치성을 배제한 채 우정을 나누었던 아지즈와 필딩은 재판 이후 그들의 기질상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마음의 이해(The secret understanding of the heart.)"(38)를 함께 나누었던 무어 부인과 아지즈는 작품을 통하여 단 세 번 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해로 맺어졌기에 그녀는 아지즈의 마음속에 남아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라바 동굴 사건 이후 영국인과 인도인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지만, 철저하게 파괴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듯이 이 여행으로 인한 동, 서양의 분열은 새로운 화합을 예견한다. 힌두교의 크리슈나 축제의 장면을 통해 새로운 화합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해의 메시지는 "당신은 동양인이군요.(You are an

Oriental)"(374)이다. 이 메시지는 아지즈에 의해 무어부인과 램프를 통해 두 차례 언급되는데, 이런 반복을 통해서 갈등에서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밝힌다. 다시 말해, "당신은 동양인이군요."로 대변되는 직관적인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 속에 나타난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함으로써 형성된 관계라기보다,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개인이 어떤 직관적이고 참나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인간의 대립과 갈등이 화합을 이루는 결말을 이끌어 내지만, 상대방의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동양의 직관적인 마음과 모든 것을 관습적인 교육으로 배운 바에 따라 이해가 필요한 서양의 이성이 서로 대립하면서 모든 인간의 삶이 동, 서양으로 양분되어 갈등한다. 따라서 인간 화합이 좌절되고 낭만적인 해결이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스터는 "자신의 소설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이며, 대립된 인간관계 속에서 연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What he values in his novel is human relationships and the important issue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with opposing human relationships.)"<sup>45)</sup>라고 피력하며 이런 모든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화해의 노력을 기울이는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결합, 사회의 결합, 동, 서로 양분된 인류의 결합을 이룰 수 있는 화해의 길을 보여주는 이 작품 속에서는 미미한 존재들로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인간과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커다란 울림으로 남는다. 타인의 삶과 분리되어 어떤 관계도 형성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분열의 상황에서 이들은 조용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의 인종과 국가의 장벽을 넘어 차별적 이성으로 분별되는 모든 장

---

45) Gertrude M. White, "A Passage to India: Analysis and Reevaluation",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 (ed.), *Malcolm Bradbury* (London: Macmillan Press, 1978), p. 149.

벽의 의미가 무화되는 세계로 인도하여 우정으로 서로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 포스터가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오는 대치적, 적대적 관점으로 상대를 보면서 생겨나는 모든 분열과 갈등의 양상을 치유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개인과 개인이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차별에서 오는 갈등을 일으키는 장벽들을 헐어버리고 상호 보완하여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깨달음과 개인에 대한 믿음과 그들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힘으로 포스터가 제시하는 '관용과 사랑'의 정신이다. 결국 포스터가 제시하고자 하는 '인도로 가는 길'이란 직관적인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스터는 이 작품에서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한계와 더불어 서구 이성 중심의 사고에도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이성적이며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서구적 사고와 감성적이며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또 '그 속에서 진정한 인간관계 혹은 이상적인 조화가 가능 한가' 라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포스터는 '관용과 사랑'으로 상징적인 용서와 화합을 넘어서 식민지배자와 피 지배자 관계의 척결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 인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단일 가치를 넘어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인간관계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지만 작품의 결론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가 이루려는 인간간의 진정한 결합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혀 달성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포스터는 이 소설에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좁힐 수 없는 간격과 분열, 혼란을 극복하고, 타인의 마음속까지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열성적인 추구를 하였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인간관계에서 우정과 영적인 결합을 추구하였다. 『인도로 가는 길』에서 포스터는 당대 어떤 작가들보다 수많은 분열과 갈등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지닌 본질적인 인간애와 인간관계의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며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적 이질감을 동질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인류가 지닌 최대의 강점임을 역설

함으로써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상반되는 모든 갈등요소들이 차별과 분리의 벽을 쌓아올리던 시대에 상호배제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이 되는 상반되는 가치들의 혼란 속에서 한계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애정으로 얽히는 조화롭고 평화롭고 따뜻한 인간 공동체를 '관용과 사랑'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한다.

개인적인 선의의 몸짓이 강하면 강할 수록 서로 더 많은 반감을 사고 오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서로간의 인간 이해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반적으로 문명사회의 갈등, 더 나아가서는 인간 본질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용과 따뜻한 성품, 공감"<sup>46)</sup>의 능력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며, 이것들은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인간의 힘이라고 포스터는 주장한다. 그리고 "그 관용의 힘으로 우리는 신의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집이 완성되면 사랑이 그 집에 거주하게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거대한 힘이 공적인 삶을 지배하게 되리라"<sup>47)</sup>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한다.

---

46) E. M. Forster, "What I Believe," *Two Cheers for Democrac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1), p. 67.

47) E. M. Forster, "Tolerance," *Two Cheers for Democrac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1), p. 48

## 참 고 문 헌

Barbara, Rosecrane. "A Passage to India: Forster's Narrative Vision,"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E. M. Forster's A Passage to India*, eds. New York: Harold Bloom & KimWelsch. Chelsea Houses Publishers, 1987.

Benita, Parry.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in A Passage to India," *E. M. Forster*. Ed. Jeremy Tambling. London: Macmillan Press, 1995.

\_\_\_\_\_. "Passage to More than India," *Forster: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Malcolm Bradbu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 1966.

Claude, Summers J. *E. M. Forster*. London: Frederick Ungar, 1983.

Das G. K. "A Passage to India: A Socio-Historical Study," *A Passage to India: Essays in Interpretation*, Ed. John Beer. London: Macmillan, 1985.

Das, G. K. and Beer John(eds). *E. M. Forster: Human Exploration*. London: Macmillan Press, 1979.

Forster, E. M. "The Challenge of Our Time," *Two Cheers for Democracy*. London: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1.

\_\_\_\_\_. "What I Believe," *Two Cheers for Democrac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1.

\_\_\_\_\_. "Tolerance," *Two Cheers for Democrac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51.

\_\_\_\_\_. *Abinger Harvest*. New York: Harcourt, 1964.

\_\_\_\_\_. *A Passage To India*. 서울: 신아사, 1985.

Furbank, P. N. *E. M. Forster: A Life*. Oxford: Oxford Univ. Press,  
1979.

Gertrude, White M. "A Passage to India: Analysis and Revaluation,"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 ed. Malcolm Bradbury,  
London: Macmillan Press, London, 1978.

Glen, Cavaliero. *A Reading of E. M. Forster*. London: Macmillan  
Press, 1979.

Hardy, John E. "The Modern World in Epitome," *Man in the Modern  
Novel*.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4.

Henry, Bergson. *Matter and Memory*, trans. Nancy Margaret Paul and W.  
Scott Palm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Inc., 2004.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James, McConkey. *The Novels of E. M. Forster*. Connecticut: The Shoe  
String Press, Inc., 1971.

- Janny, Sharpe. "The Unspeakable Limits of Rape: Colonial Violence and Counter-Insurgency," *Genders* 10, 1991.
- John, Beer. *The Achievement of E. M. Forster*. London: Lowe & Brydon Ltd., 1968.
- \_\_\_\_\_. "The Undying Worm,"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A Casebook*. Ed. Malcolm Bradbury. London: Macmillan, 1970.
- John. Martin Sayer John. *E. M. Forster: The Endless Journe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77.
- Jonah, Raskin. *The Mythology of Imperialism*. New York: A Delta Book, 1971.
- Lionel, Trilling. *E. M. Forster*. Oxford: Oxford Univ. Press, 1983.
- Malcolm, Bradury. "Two Passage to India: Forster as Victorian and Modern," *Aspects of E. M. Forster*. London: Macmillan Press, 1978.
- Mary. Lego Mary. *E. M. Forster: A Literary Life*. London: Macmillan Press, 1995.
- Page Norman. *E. M. Forster*.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87.
- Reuben, Brower A. "The Twilight of the Double Vision: Symbol and Irony in A Passage to India,"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 Ed. Bradbury,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70.

- Richard, Martin. *The Love That Failed: Ideal and Reality in The Writing of E. M. Forster*. Mouton: The Hague, 1974.
- Roger, Ebbaston & Catherine Neale. *E. M. Forster: A Passage to India*. Penguin Books, Harmondsworth, 1986.
- Rukun, Advani. *E. M. Forster As Critic*. London: Croom Helm, 1984.
- Said, Edward E.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9.
- Vasant, Shahane A. "Forster's Inner Passage to India," *E. M. Forster: Centenary Revaluation*, eds. Judith Scherer Herz & Robert K. Martin. London: Macmillan Press, 1982.
- Wilfres, Stone. "The Subversive Individualism," Judith Scherer Herz and Rober K. Martin Eds, *E. M. Forster: Centenary Revaluations*. London: Macmillan, 1983.
- 김명렬. "Forster의 『인도로 가는 길』 -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을 넘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백낙청 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4.